

루브르박물관 등 佛 소장 한국문화재

대부분 일본·중국 통해 유출

직지·왕오천축국전·고려불화 등 2천여점 기메박물관 외엔 중·일 문화재와 뒤섞여

도 못 본다. 이러한 때에 마침 프랑스 소재 한국 문화재가 어떤 경로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밝힌 학술 강연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 박물관이 '만 나라 꼬레'(-3월 2일) 특별전의 일환으로 18일 개최한 학술 강연회다.

이날 '프랑스 소재 한국 문화재'를 주제로 강연한 파리 기메아시아박물관 피에르 캄봉 수석학예관은 "프랑스 소재 한국미술품들은 중국·일본을 거쳐서 프랑스에 유입된 경우가 많았다"며 "전문학적 가치를 지닌 뛰어난 작품들이 많지만 대부분 흩어져 있고, 한국실이 따로 있는 기메박물관을 빼고는 중국, 일본 것과 섞여 전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는 국립도서관, 기메박물관 등에 2천여 점의 한국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인양요를 통해 유입**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은 강화도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갔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과 프랑스 간에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 297점(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이다.

◎**한국에서 직접 수집** 프랑스 사람 중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많은 한국 문화재를 수집한 사람은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관 지냈던 폴랭 드 플랑시였다. 플랑시는 1911년 70여 점에 달하는 한국 문화재를 경매에 붙였는데 이때 보석상인 앙리 베베르가 구입한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 초록 불조직지심체유점>(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이다. 인류학자인 사를르 바라는 1888년 가을부터 현재 기메박물관 한국실에 전시 중인 고려시대 철제전수관음보살좌상을 구입했다. 플랑시와 바라는 조선시대 불화도 상당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 프랑스 부공사로 근무했던 모

리스 쿠랑은 특히 한국의 서적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중국에서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 유입** 동양학자 폴 펠리오가 1908년 중국의 둔황석굴에서 발굴한 것이 그 유명한 신라 승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다. 다른 중국 문헌들과 함께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 보내졌던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중국-인도의 해로와 실크로드에 대한 기록으로는 유일무이한 자료다.

◎**중국·일본을 통한 구입** 프랑스 소재 한국 문화재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물을 수집하는 가운데 같이 소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기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불화 3점처럼 초기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불화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루브르박물관과 리옹박물관의 한국소장품 역시 일본 도자기를 수집하는 와중에 한국의 분청사기나 고려 자기도 같이 수집한 경우다.

프랑스 기메박물관은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철조전수관음보살좌상, 조선시대 불화 등 1천여 점의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mny@buddhapia.com



◇프랑스 기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 일본인을 통해 구입한 직후에는 중국 원나라 시대 회화 목록에 올라 있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얼마나 되며 어떤 경로로 빠져나간 것일까?

문화재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유출돼 있는 우리 문화재는 20여 개국 7만5천여 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고문서 3만여 점도 전체의 3분의 1정도로 추산될 정도로 현황 파악도 정확히 안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출 경로 파악은 꿈



불교공예(8)

마음이 휘날리는 것대

옛날의 사람에서는 지금과 달리 적지 않은 깃발이 휘날렸다. 절 입구에는 어느 종파의 소속임을 알려주는 깃발이 필적이고, 법당 안에도 기둥이나 천개에 깃발이 드리워지며, 법회 때 마당에 깃발을 세우고, 탑에는 하늘 높이 나부끼던 깃발이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화려한 깃발문화가

면 용이 문고리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깃대의 꼭대기 고리를 용머리로 꾸미는 이유는 초도가 물고 있으면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용머리로 꾸민 깃대는 불교의 의장인 뿐만 아니라 궁중의 의장에서도 함께 활용되었다. 이 용머리 모습의 고리를 <조선왕조실록>이나 <춘관통고(春官通考)> 등 문헌에서는 간두용구(竿頭龍口環)이라 불렀다. 경북 풍기에서 출토된 금동용두(국립대구박물관 소장)가 대표적인 간두용구 환인 것이다. 또한 이 깃대에는 마디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래 깃대로 대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깃대 간(竿)자를 보더라도 대쪽 머리가 씌어져 있다. 때문에 용두보당에서는 재료로 청동을 사용했어도 대나무의 마디 표현만은 남아 있는 것이다.



◇용두보당(국보 136, 10~11세기, 호암미술관 소장). 당간지주는 받침대 둘만 남아 있는데, 이 유물을 통해서 당간의 나머지 깃대부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점차 사라지고 콘스님들의 다비시 때나 볼 수 있는 만장 정도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절 입구에도 깃발은 물론 깃대마저 사라지고 깃대를 꽂아두던 장치인 당간지주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가운데 비록 깃발은 없어졌지만 깃대가 온전히 남아 있는 유물이 전하여 예전의 깃발문화를 떠올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국보 136호로 지정된 용두보당(龍頭寶幢, 호암미술관 소장)이다.

이것을 우리는 당간(幢)이라 부른다. 당(幢)은 깃발이고 간(竿)은 깃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당간지주라 하면 이 깃대를 땅에 버티고 서있게 하는 받침대를 말한다. 깃발의 종류로는 당외에도 변(幡), 정(旌), 기(旗), 절(節), 개(蓋)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당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깃발인 것이다. 물론 이 깃대에 당이 걸렸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이 깃발의 대

이것을 우리는 당간(幢)이라 부른다. 당(幢)은 깃발이고 간(竿)은 깃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당간지주라 하면 이 깃대를 땅에 버티고 서있게 하는 받침대를 말한다. 깃발의 종류로는 당외에도 변(幡), 정(旌), 기(旗), 절(節), 개(蓋)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당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깃발인 것이다. 물론 이 깃대에 당이 걸렸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이 깃발의 대

이것을 우리는 당간(幢)이라 부른다. 당(幢)은 깃발이고 간(竿)은 깃대를 가리킨다. 그리고 당간지주라 하면 이 깃대를 땅에 버티고 서있게 하는 받침대를 말한다. 깃발의 종류로는 당외에도 변(幡), 정(旌), 기(旗), 절(節), 개(蓋)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당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깃발인 것이다. 물론 이 깃대에 당이 걸렸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이 깃발의 대

높이 73.8cm의 실내용 당간 용두보당 생기 넘치는 용 형세... 불교미술 정수

명사이기 때문에 당간이라 불려도 무방하다. 또한 당간을 간략하게 당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유물의 명칭이 용두보당인 것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명칭을 붙인다면 청동용두간(靑銅龍頭竿)이 맞다.

그런데 깃대의 꼭대기는 왜 용머리로 장식되어 있는 것일까? 용에게는 아들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이 초도(敎圖)는 무엇을 물기를 잘했다고 한다. 그래서 문고리인 포수환관(鋪首銜環) 장식을 보

구성이 매우 뛰어난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절묘한 비례 속에서 용의 형세는 생기가 넘친다. 간결한 표현이지만, 감기, 더듬이, 송곳니, 눈썹, 귀 등의 뽀얗게 살아있는 듯하다. 조용하면서도 힘찬 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고려전기 불교미술의 정수를 맞출 수 있는 작품이다. 이제 이 아름다운 깃대에 당이나 번보다는 해능선사처럼 마음의 깃발을 휘날려 보는 것이 어떨는지.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불교-사회와 관계 선택 아닌 의무” 조성택 “원효 ‘일심·무애사상’ 인류에 본질” 안옥선

‘코리아 저널’ 2002 겨울호, 한국불교관련 논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영문으로 발간하는 한국학 계간지 <코리아 저널(Korea Journal)> 2002 겨울호에 한국불교 관련 논문 두 편이 나란히 실렸다. 지난 61년 월간 시사지로 출발, 91년부터 학술계간지로 성격을 바꾼 <코리아 저널>은 세계적인 학술평가기관인 과학정보기구(ISI)의 학술지 목록에 등재된 국내 유일의 인문학 잡지로 전 세계 180여 나라의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불교와 사회참여’라는 논문을 실은 고려대 조성택 교수는 “불교 교리 자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한국불교의 수동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다”며 기존 견해를 반박했다. 그보다는 “역사발전 단계의 문제였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고려 시대까지의 사회와 교육, 문화, 정치의 중심에 있었었던 불교가 조선시대 동안 사회 외곽에 위치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위는 일제 강점

기 이후에도 계속됐고, 60년대 정화운동을 통한 종단 재편은 “불교가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는 이제 어떤 역사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불교와 사회와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결론지었다.

안옥선(전남대 강사) 씨는 ‘원효사상에 있어서 인권의 기초 이념’이라는 논문에서 원효의 사상과 삶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일심과 무애는 유엔 인권선언의 기초이념인 자유, 평등, 인류애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심은 자비의 요정을 본질로 하면서 평등을 천명하는 개념이며 무애는 자비와 자유를 실천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안 씨는 “무애의 자유는 자비를 전제로 한다”며 “무애의 개념 속에 내포된 자유는 근·현대가 추구해온 원자적·소유적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자타동체에 근거한 자유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불상복장 속 오방색 직물의 배치.

불상복장서 발견된 직물로 당시 풍조·의식 알 수 있어 향 짙은 겹보자기 색 방위따라 달라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되는 의복이나 직물은 당시의 직조 기술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숙(74) 아시아민족조형문화연구소 한국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

혁신 천을 사용하는데 이는 생활의 일부 분으로 자리 잡은 음양오행사상과 불교사상의 점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 제35집에는 이밖에도 ‘경천사 10층석탑 복원에 관한 고찰’ ‘고대 벽화안료 재질분석 연구’ ‘인형극(만석중 놀이) 조사보고’ 등 모두 15편의 논문이 실렸다.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봉구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제매자 성 광 수석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웰치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2004